



남성의학 전문의 소영석의
술직·대담한 性

행복한 결혼생활 위해 남성검진 꼭 필요

본격적인 결혼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. 많은 남
성들이 결혼준비를 하면서 소홀히 여기는 것이
바로 혼수보다 더 중요한 건강이다. 결혼은 두 사
람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성을 공유하고 자녀
를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기본이
된다. 결혼 전 남성 검진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
는데 꼭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종합검진이 좋지만
결혼이라는 특성상 배우자나 자녀에게 영향을 줄
수 있는 전염성이나 유전성 질환, 불임 여부 및 남
성 성기능장애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.

이 나오며 염색체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였다.
이처럼 일상생활이나 부부관계에는 이상이 없
더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, 새로 결혼한
부부 열 쌍 중 한 쌍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
부부다. 불임은 남자가 각각 절반의 책임을 가지
며 사전 인지를 위해서는 결혼 전 임신 가능검사
가 필요하다.
검사로는 첫째, 정액검사로 정자가 건강한 상
태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정확한 정액검사를 위
해 적어도 2-3일간의 금욕 기간이 필요하다. 둘째,
신체검사와 초음파검사 등을 통하여 고환,
부고환, 정관의 상태 및 비뇨생식기 계통의 이상
유무를 확인하며 정상 성인의 고환용적은 20ml
이상인 반면 만졌을 때 탄력이 있어야 한다. 셋째,
남성기능의 중요한 측정 인자인 남성호르몬
검사로 성기능부전이나 남성호르몬 부족 등을

가 감염된 경우는 선천성 기형이나 태아의 발육
에 영향을 주지만, 유산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
에 검사를 받아보고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
해야 한다.
전립선염이나 성병은 비교적 젊은 남성에서
자주 나타나는 질환이며 전립선염은 요도염과
증상이 비슷해 성병으로 오인하여 치료받는 환
자도 많으나 대부분에서는 경과 무관하며 전염
되거나 아기를 갖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.
그러나 일부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세균에 의한
경우도 있으므로 전립선염 검사를 시행하는 것
이 좋다. 또 혈액 검사 및 소변이나 전립선액을
통한 각종 성분검사에 대한 유전자 검사로 성병의
존재 유무를 알 수 있다.
이 같은 기본검사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
건강을 지키며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될 만한 요인
을 미리 확인하여 치료하므로 행복한 결혼 생활
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. 이러한 검사 외에 의료
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피임법, 성교육,
예방접종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
는 것도 건강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데 도움이
된다.
<명비뇨기과원장>

리빙 센스

양산 구입 방법

①양산을 구입할 때는 UV코팅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
이 중요하다. UV코팅처리가 되지 않은 저렴한 제품은 자
외선 차단효과 없이 햇빛만 가려준다.

②날씨가 더워지면서 갑작스런 소나기에 우산대용으로
사용할 경우도 있으므로 방수공정처리가 된 제품을 구매
하는 것이 좋다.

③요즘 나오는 양산은 주로 '뽀'로 된 형태를 많이 사
용하므로 가볍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. 하지만 너무 가벼
운 제품은 잘 부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무게의
양산을 선택하는 게 좋다.

④자신의 기호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한 후 UV코팅 여부
를 확인하고, 원단의 재질을 검토한다. 원단의 날염 상태를
안파우로 확인하여 날염의 번짐이 없는지를 점검한 후 원단
의 박음질상태, 재봉선의 끝머리까지 꼼꼼히 확인한다.

함께 풀어봅시다 <299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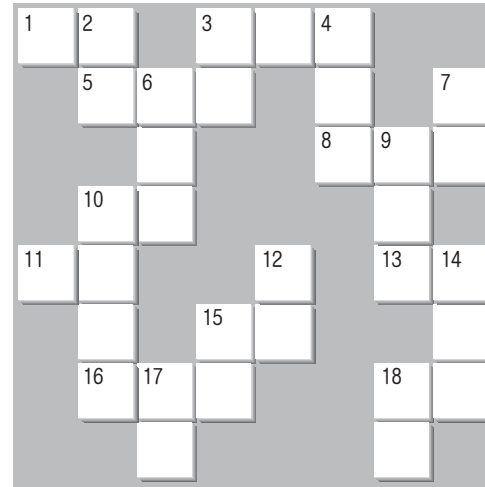
→ 가로풀이

1.남을 빈정거리 놀림. 또는 그런 말이나 몸짓.
관중들은 경기가 거칠어지자 ~를 보았다. 3.실정
이나 사정을 진술해 적은 글.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
내용의 ~를 구청에 제출했다. 5.선거에 후보자로
나선. 무소속으로 ~했다. 8.오이, 참외, 수박, 호박
등을 심은 밭을 지키기 위해 밤머리에 지은 막. 10.
아들의 아들, 또는 딸의 아들. 할머니가 어린 ~를
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다. 11.양쪽의 집. ~ 부모님
을 모시고 상경해 자리를 마련했다. 13.무엇을 가
지고서 모임 등에 참여할. 무엇을 지니고 음. 도시
락 ~. 15.보통 한복을 입을 때 천으로 발 모양과 미
숙하게 만들어 종아리 아래까지 발에 신는 물건. 흔
히 무명, 광복 등의 천으로 만든다. 16.꽃물을 댄지
아니한, 진흙만으로 구워 만든 그릇으로 윤기가 없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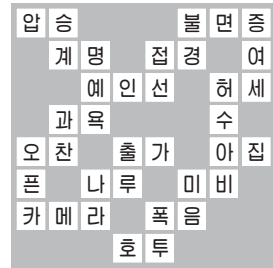
다. 18.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. 그분은 내 생명의
~이다.

↓ 세로풀이

2.물이 어떤 곳으로 흘러들. 오염된 물의 지하
수 ~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. 3.정도나 수준
이 나이지거나 높아짐. 또는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
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함. 4.죄를 의인
화해 속죄하게 이르는 말. 6.어떤 일이나 사람의 뒤를
잇는 사람. 7.영사막을 달리 이르는 말. 또는 영화
계를 비유해 이르는 말. 9.몸의 길이는 9~18cm,
꼬리의 길이는 1~3cm이며 어두운 갈색 내지 검은
갈색인 동물. 귀와 코는 예민하나 눈은 퇴화해 매우
작다. 10.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. 또는 알보거나
홍보하는 것. 그를 매국노라고 ~을 했다. 12.전기 회
로의 두 점 사이의 절연(絶緣)이 잘 안되어서 두 점



사이가 접속되는 일. 전기 ~으로 불이 날 뻔했다.
14.어떤 자리에 직접 나아가서 보는 사람. 그는 ~
으로 개표장에 나왔다. 15.오랫동안 자주 반복해
물에 익어 버린 행동. 17.빛이 가리어져 어두운 상
태, 또는 그 자리. 나무 ~.→을지. 18.예금을 받아
그 돈을 자금으로 대출, 어음 거래 등을 업무로 하
는 금융 기관. ~에 저축하다.



<함께 풀어봅시다 298회 정답>

▲지난주 정답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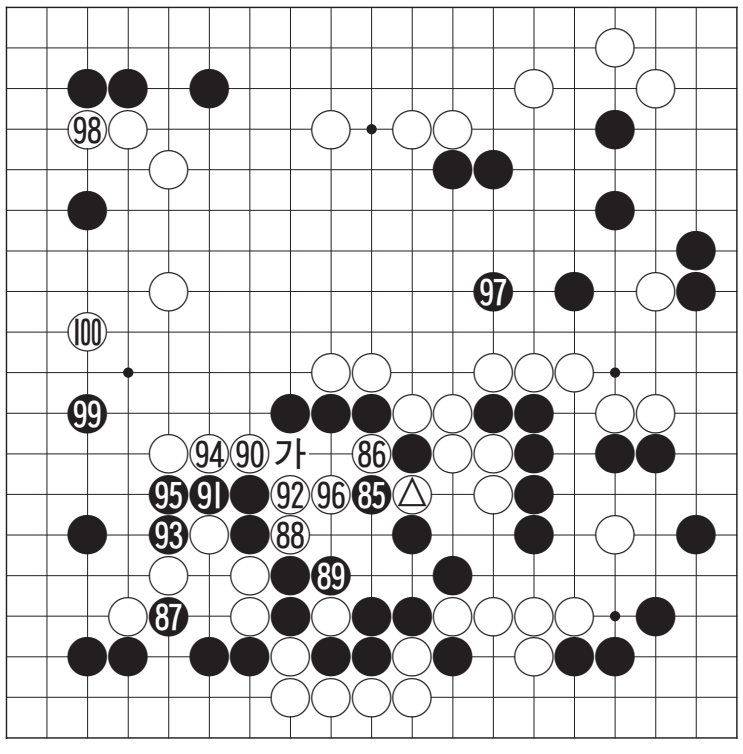
문미영·광주시 남구 주월동
정원용·순천시 금곡동

▲응모방법

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보내시면 매
회 1명씩 추첨, 상품권(2만원)을 선물로 드립니다.

▲보내실 곳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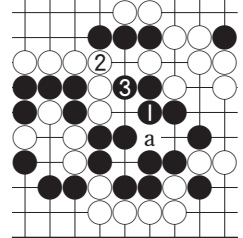
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-2 광
주일보사 여문예재부



광주 유단자회
리그전

올며 겨자먹기 6보 (85~100)

白 임상빈 6단 黑 박정규 5단



<참고도>

다. 그런데 박정규 5단이 이를 용납
하지 않고 흑 87로 두어 반항하는 바
람에 느닷없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
작한다.
임상빈 6단이 지지않고 백 88로 단
수전 것은 당연한 반발이며 기세. 그런
다음 90에 붙여간 것이 통렬한 백집이
되었다. 이 수 때문에 흑 87로는 96 자

리에 크게 늘어뒤야 했던 것이다.
박정규 5단은 뒤늦게야 아차하며
흑 91부터 95까지 올며 겨자먹기로
백 다섯점을 잡는다. 얼핏 보면 이 결
과는 흑의 실리가 좋은 것처럼 보인
다. 그러나 허약하던 백 다섯점은 패
석에 가깝고 심상하던 중앙의 흑 석
점은 그 가치가 실로 커서 이 교환은
백의 대성공이다.
백 96은 '가'에 선수로 끊기는 것을
염려한 것인데 이 수가 흑의 티였다.
이 수로는 '참고도'의 백 1로 잡는 것
이 컸으며 흑 2에 3으로 따내면 그만
이다. 다음 'a'로 짚는 수가 남는다.
100까지 안개속 형국이다.
<오규철 9단·본보 바둑해설위원>

바둑소식

이성재 바둑리그 기선 제압

광주 Kixx의 이성재 8단이 KB국민
은행 2008 한국바둑리그에서 경기 한
게임의 운소진 4단을 꺾었다.
이성재는 지난 26일 서울 한국기원
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운소진을 상대
로 293수 끝 4집반승을 거뒀다. 이성
재는 끈질기게 대마를 공격하면서 실
익을 챙겼다. 막판 우상귀에서 맞붙은
패 싸움을 승리로 장식하며, 승부에 마
침표를 찍었다. 또 같은 날 경기를 가
진 광주 Kixx의 송태곤 8단도 경기 한
게임의 이현호 초단을 137수 끝에 불
계승으로 제압했다. 송태곤은 초반부
터 거칠게 이현호를 몰아붙여 대국이
시작된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항복
을 받아들였다.
/오광복기자 kroh@

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8일(음 3월 23일 戊戌)

- 36년생 불필요한 구매로 과소비기 있을 수 있다. 48년생 작은 것
은 소중한 것이니 작은 것부터 잘라라. 60년생 직장에서 인정과
칭찬을 받는다. 72년생 현실성이 없는 일은 일찍 포기해야 한다.
84년생 돈은 생고기나 소비가 크다.
행운의 숫자: 03, 43
37년생 어른의 지혜를 보여줘라. 49년생 너무 무리한 일은 벌리
면 손해가 크다. 61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긴다. 73년생 가
까운 곳에 귀인이 있으니 멀리 찾지 마라. 85년생 대가를 바라지
 말고 인덕을 베풀면 보답은 배가 된다.
행운의 숫자: 13, 23
38년생 고통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. 50년생 현실에
만족하지 말고 꿈을 크게 가져라. 62년생 생범한 것이 좋은 것이
다. 74년생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일도 잘 할 수 있는 사람
이다.
행운의 숫자: 05, 26
39년생 이왕 출발했으면 앞만 보고 가라. 51년생 마음의 문을
 활짝 열고 기다려봐라. 만족하라. 63년생 옛 친구를 만나서 좋
은 시간을 갖는다. 75년생 쓸데없는 걱정은 버려라. 해결할 수 있
는 것이다.
행운의 숫자: 32, 44
40년생 불연이든 이별할 수도 있으니 가정불화는 피하라. 52년생
자신의 임의로 구설수가 생긴다. 64년생 바뀌었던 것은 모두
조심해야 하리라. 76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이
로 하루를 보내라.
행운의 숫자: 17, 28
41년생 추억은 아름답지만 과거에 연缅이지는 말아야 한다. 53
년생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다. 65년생 정도를 잃으면 해는 없으
리라. 77년생 걱정을 버려라. 걱정의 40%는 일과나지 않을 것이
다.
행운의 숫자: 18, 40
42년생 두드러라. 그러면 열리리라. 54년생 득도 많고 실도 많은
날이니 마음을 비우라. 66년생 조상의 묘를 찾아보면 마음이 평
안하리라. 78년생 감정의 변화가 심한 날이니 자신의 안정을 기
하라.
행운의 숫자: 34, 35
43년생 아침은 무력하나 오후는 활발해진다. 55년생 친구와 만
나서 술 한잔한 흥기가 생기리라. 67년생 항상 마음을 부드럽
게 가지면 친구가 많으리라. 79년생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.
행운의 숫자: 24, 45
44년생 맛있는 음식은 친구와 나누어 먹어라. 56년생 친구에게
서 좋은 소식이 전해온다. 68년생 옛 문서는 버리고 새로운 문서
를 읽는다. 80년생 지난 과거에 얽매지 말고 새로운 일을 계획
하라.
행운의 숫자: 16, 27
45년생 주변의 달콤한 말은 믿지 말라. 독이 된다. 57년생 다부면
순재도 양보하면 독이 된다. 69년생 지금은 고통이지만 내일은
행복하다. 81년생 여유 있게 행동하면 독이 되고 금하면 실이 된
다.
행운의 숫자: 22, 42
46년생 자식에게 신경을 써라. 자식은 자신의 희망이다. 58년생
실물이 예상되니 문단속을 잘라라. 70년생 마음의 변화가 생기
니 기도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. 82년생 오늘은 평온이 다가
지 내라.
행운의 숫자: 09, 39
47년생 오늘 하루는 편안하게 쉬어도 된다. 59년생 심사숙고해
서 결정하면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다. 71년생 오래 동안 막힌 일
이 해결된다. 83년생 처음은 괴롭지만 나중은 평온이 다가올 것
이다.
행운의 숫자: 10, 30

www.cafe.daum.net/sajoo114 ☎011-632-6121
더마플라스트 밴드
제품구입문의: (주)호원약품 062-383-5883

굿모닝 잉글리쉬 <1148> 오하오우 니혼고 <1148> 니하오 쑹구워 <125> 한자 이야기 <765>

Where is it playing?
어디에서 상영합니까?
A: Let's go see a movie.
B: Yah, let's see the Titanic.
A: Where is it playing?
B: I think it's the Hollywood USA.
A: 영화를 보러 가시죠.
B: 그러죠. 타이타닉을 볼까요.
A: 어디에서 상영합니까?
B: 아마 Hollywood USA. 극장일거예요.
* 그 영화 어디에서 상영됩니다?
= Where is the movie playing?
* 당신은 학교를 어디로 옮겼습니까?
= Where is your school moving?
* 그 가게는 어디에서 개업을 합니까?
= Where is the store opening?
* 그 경기장은 어디에서 지어지고 있나요?
= Where is the stadium being built?

お腹がいっぱいになるもの食べたいな。
배 부르는 것 먹고 싶어
A: ああ、お腹すいた。何食べます。
B: そうだな。この店は何かおいしいのかな。
A: うどんがおいしいですよ。種類(しゅるい)もいろんなの
が。
B: でもうどんだけじゃなく物足(ものたり)ないね。
お腹がいっぱいになるもの食べたいな。
A: 아아, 배고프다. 뭐 먹을래?
B: 그러지 뭐. 이 가게 뭐가 맛있을까.
A: 우동이 맛있어요.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.
B: 하지만 우동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. 배 부르는
것 먹고 싶어.
お腹(なか): 배
店(みせ): 가게
なんとなく: 왠지

不错。
괜찮습니다
A: 她的学习成绩怎么样?
tā de xuéxì chéngjì zěnmeyàng
그녀의 학업성취 정도가 어떠한가?
B: 不错。
hǎocuò
괜찮아.
A: 她会说中文吗?
tā huì shuō zhōngwén ma
그녀가 중국어를 말할 수 있는가?
B: 会。
huì
할 줄 압니다.
A: 그녀의 성격은 어떻습니까?
R: 괜찮습니다.
A: 그녀는 중국어를 할 줄 압니까?
B: 할 줄 압니다.
不错 [bùcuò] 좋다, 괜찮다
中文 [zhōngwén] 중국어, 중국어

附耳細語(부이세어)
붙을 부, 귀 이, 가늘 세, 말씀 어
부이세어(附耳細語)는 귀에 대고 조용히 말한다 뜻으로,
남의 장단점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의미로 사용된다.
이 말은 조선(朝鮮) 조의 명재상이었던 황희(黃希, 1363~
1452)가 이치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있던 시절[포의, 布衣]의
일화(逸話)에서 유래한다. 황희가 어느 날 들관을 가다가 길가
에서 쉬고 있는데, 농부가 두 마리의 소에 멍에를 메우고서 밭
을 갈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.
“노인장 두 마리의 소 중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오?” 농부는
대답하지 않고, 밭 갈던 일을 멈추고 다가와서, 귀에 바짝 대고
작은 소리로 속삭였다[附耳細語]. “이쪽 소가 낫습니다.” 황희
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, “무슨 까닭에 귓속말을 하는 거
요.”라고 묻자, 농부는 “짧은 선배, 모르는 소리하지 마시오. 말
못하는 짐승이라도 자기를 욕하고 흉을 보면 기분을 상하게 되
는 것이요.”라고 하였다. 황희는 크게 깨닫고, 마침내 다시는 사
람들의 장단점(長短點)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.(芝峰類說)
비록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짐승에게도 이렇게 주의
를 할진대, 하물며 같은 감정을 갖고, 서로의 얼굴 표정만 보아
도 마음을 알아보는 동료와 가족의 경우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
 기울여야 할 것이다.